

젊은 건축가들의 국제 포럼 (IFYA) 참가기

Report on the International Forum of Young Architects

金寬錫/건축사사무소 아르텍

by Kim, Kwan-Suk

올해 5월초에 우리계획의 이정근 소장으로부터 일본 고베(神戸)에서 열리게 된다는 이 포럼에 응모해 보겠냐는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소재 내용을 팩스로 받아보았다.

1. 포럼의 이름 : IFYA KOBE 1993
젊은 건축가들의 국제 포럼
(INTERNATIONAL FORUM OF YOUNG ARCHITECTS)
2. 주최자 : 국제 건축 학교(International Academy of Architects)
일본 최고 책임자 : 기요노리 기쿠다케
3. 일시 : 1993년 8월 18일부터 8월25일 까지
4. 장소 : 워크숍-고베 타워사이드 호텔
숙소 -고베 타워사이드 호텔
심포지엄-고베 포트 아일랜드 국제 회의장
5. 내용 : 고베시의 해안에 초점을 맞춘 건축 디자인 워크숍
6. 참가자수 : 40세 미만의 젊은 건축가(외국인 30명, 일본인 30명)
7. 참가자격 : 1) 40세 미만의 젊은 건축가
2) 단기간에 협동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는 능력
3) 영어를 말하는 능력
8. 예상되는 교수진 : 스토일로프(불가리아)와 기쿠다케(일본)를 포함한 10여명의 저명한 건축가와 전문가들
9. 지원 기관 : 건설성
일본 건축가와 건설기술자 협회 연합

10. 스폰서 : 고베시

11. 공지사항 : 1) 참가자는 고베시를 왕래하는 교통비를 부담한다.
2) 고베에서의 숙박은 IFYA 일본 사무소가 부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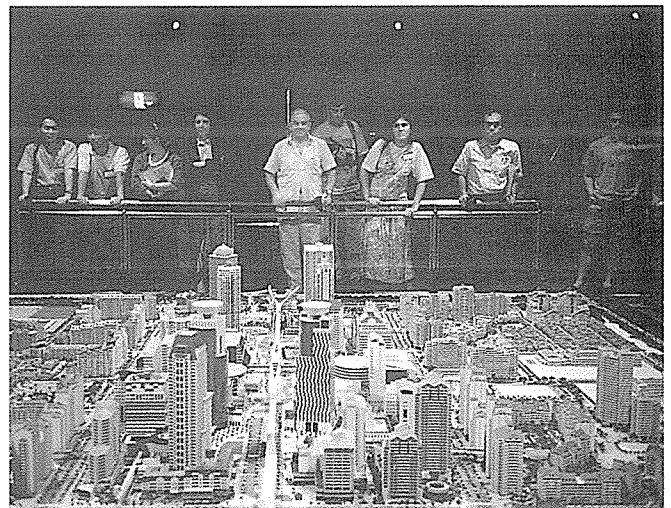
12. 연락처 : 1) 각국 IFYA 사무국
2) IFYA 일본 사무국(주소 생략)

그리고 부수된 설명을 읽어보니 이 포럼은 2년마다 주요 국제 도시에서 열린다는 것이었다. 원래는 2월에 이것이 일본에서 공고되었던 것이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다지 널리 알려진 것 같지는 않았다. 아무튼 일본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 해서 이에 응모하여 일본에 가게 되었다. 한국에서 같이 참가한 사람들은 심영섭씨와 이관직씨 두사람이었다.

일본에 갈때의 준비물은 삼각자, 연필 등의 학용품과 자신의 작품을 A3 두장에 표현해 오라는 것이었다. 도착해 보니 호텔 5층 회의장에 꽤 좋은 평행자가 붙은 제도판을 갖다 놓고 있었다. 참가비로는 18,000엔을 받았다. 5층 라운지에는 각자가 가져온 작품들이 워크숍 기간 내내 전시되었다. 처음부터 느껴지는 분위기는 다같이 토론하는 포럼이라기 보다는 참가자들은 학생 신분으로서 배우는 워크숍이라는 것이었다. 아마도 일본이었기 때문에 교수와 학생간의 신분차는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싶었으며 다시 대학생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자기부상 실험선 아마토호 앞에서



고베 인공섬인 로꼬 아일랜드 개발모형을 보면서



첫날 고베시장이 주최한 리셉션 파티장에서

도착한 첫날 저녁에 고베 시장이 주최하는 융숭한 리셉션 파티가 소라구엔에서 열렸다. 다음날에는 기쿠다케 교수, 불가리아의 스토일로프 교수와 프랑스의 벨몽 교수, 그리고 뉴욕 해안개발 책임자인 크리거 교수 및 불가리아의 스타니셰프 교수와 IFYA 사무국장 게이미 하라다씨가 이 워크숍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였다. 그리고 4가지 주제를 나누어 2팀씩 8개팀을 구성하기 위해 1, 2, 3지망을 받아 팀을 구성하였다. 모든 프로젝트는 고베시를 위한 것이었다. 나는 그중에 인공 섬(Artificial Island)이라는 주제를 선택하였다. 이것은 전에 영국에서 공부하던 때 해보고 싶었던 주제이기도 하였다.

우리 팀에는 일본인 5명과 멕시코 건축가 1명, 대만 건축가 1명과 본인이라서 제대로 영어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실은 영어로 말할 때 부담감이 적어져서 좋은 듯도 했다. 우리팀은 항상 웃고 떠드는 팀이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가장 화목한 팀이라 부르기도 했다. 같이 간 심영섭씨와 이관직씨와는 각각 다른 팀이 되었다. 여러가지 경험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가끔씩 다른 팀을 선택해 보자고 했는데 실제로 원하는 주제가 달라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이었다.

다음날부터 매일 8시에 워크숍이 시작되어 밤 11시 이후까지 계속되었다. 특히 마지막 3, 4일간은 취침시간이 1시, 2시, 3시 이후로 점점 늦어졌다. 낮에는 여러가지 단체 관람이 있었다. 미쓰비시 중공업 견학, 고베의 인공섬인 로코 아일랜드 견학, 자동차로 왕복 6시간이상 걸렸던 혼다 자동차 공장 견학 등이 있었다. 저녁에는 기쿠다케, 시주오 하라다, 벨몽, 크리거, 시게루 이토, 크레이븐 등 여러 교수들의 강의를 하루에 2번씩 있었다. 그리고 고베시에서 나와 각팀과 컨설팅을 해 주었다. 저녁마다의 강연후에는 각팀이 경쟁적으로 밤늦게까지 작업을 계속하는데 유우머가 많은 친구들이 돌아다니며 분위기를 재미있게 만들기도 했다.

이번 포럼의 주제 중의 하나는 생태학적인 도시-에코폴리스(Ecopolis)였다. 전세계적으로 점점 생태학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테마로 떠오르는 듯했다. 이것을 해결 못하면 인간 문명이 끝나게 될 것임을 모든 교수들이 강조하였다. 나름대로의 탈출구를 제시해 보여 주기도 하였다. 기쿠다케 교수의 떠있는 선형 도시 계획안이나 하라다 교수의 수퍼 스카이스크래퍼 에코폴리스안, 부르노제비의 비디오 강연인 에코폴리스안, 하와이의 해양생태학 전문가 크레이븐 교수의 생태학 실험결과 등이 감명 깊었다. 이들은 한결같이 젊은 건축가들에게 미래를 좀더 책임감 있게 맡기고 싶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제 8일째 아침 각팀들은 전시회와 평가회를 위해 포트 아일랜드 국제 전시장에다 작품들을 걸었다. 그 다음날에는 에코폴리스 포럼이 열려 각 교수들의 의견 발표들이 있었고 저녁에는 스토일로프 교수의 시민들을 위한 공개 강연이 있었다. 그 다음에는 종강 겸 고별 파티가 열렸다. 여기에서 몹시 연로하신 겐조 당계씨의 찬조 연설이 있었다.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대부분의 팀들은 전체 파티 후에도 연장된 소규모 파티를 열었다. 나는 워크숍이 열렸던 타워사이드 호텔 5층 라운지에서 20여명과 밤늦도록 같이 어울려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포럼에 참석한 보람으로는 외국의 건축가들과 알게 되고 몇몇과는 친해졌다는 기쁨과 인류 미래의 생태학적인 위기에 대한 좀 더 깊어진 이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떠나기 전에 앙케이트 조사가 있었다. 그 내용 중에 차기의 IFYA의 주최자를 추천해 보라는 대목이 있었다. 여기에 주저없이 대한건축사협회를 추천하였다. 한국과 세계의 미래를 세계 각국의 건축가들이 모여 다같이 생각해 보는 자리가 하루 빨리 이 땅에서 마련되었으면 한다. 또한 앞으로 2년마다 세계의 중요도시에서 열리는 이 포럼에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으면 한다.